

기획특집

1. 각 도별 FTA 농가대책 안내
2. 가축질병방역 진단
3.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내

파워인터뷰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 상생해야”
강성기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Focus

1. 농업용 면세유 적용 확대
2. 가축재해보험 진단

한우와 우자!

당신의 마음에 표현하느라 한우만 한 것이 없습니까
정신을 다해 키워야만 한우
사물에 그칠아닌 당신의 사랑을 전하세요



Contents APRIL 2012

- 02~05 기획특집 1
각 도별 FTA 농가대책 안내
- 06~07 기획특집 2
가축질병방역 진단
- 08~09 Information
한우자조금 대의원회
- 10 파워인터뷰
강성기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 11 기획특집 3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내
- 12~13 Focus
1. 농업용 면세유 적용확대
2. 가축재해보험 진단
- 14 Information
PPL 및 행사안내
- 15 Information
애독자 코너

한우산업의 봄이 기다려집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추운 겨울이 어느 덧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한우산업의 현실은 아직 봄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분명한 것은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오기 마련이고, 우리산업의 어려움도 결국 그 끝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따뜻한 4월, 진정한 한우산업의 봄을 기다려봅니다.



기획특집1_ 각 도별 FTA 농가대책 안내

국내 조사료 확대, 청정 고급육 생산으로 경쟁력 강화

조사료 위주 사양관리로 사료비는 낮추고,
선진화된 유통채널 만들어 고급육 싸게 판매

한미FTA로 인한 한우산업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고민은 현장과 밀접해 있는 지자체도 예외일 수 없다. 각 도별 FTA관련 대책을 소개한다.

2016년까지 한우 1등급 이상
출현률 80%로



경기도는 풍부한 지자체 재정을 기반으로 생산성 향상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우선 현재 64%의 한우 1등급 출현률을 2016년까지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FTA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예산을 작년보다 25억원 증액했다. 신규 사업을 만들고, 기존 사업은 예산을 증액했다. 축산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신설해 총 200농가에 1억8천만원의 도비를 지원한다. 다용도 축분처리장비(스키드로터)도 200대를 지원한다.

우수축산물학교급식체험행사를 13회에 총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경기 명품청정한우 복원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기존 사업도 사업비를 증액해 농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을 비롯해 축산환경 개선사업, 아름다운 축산농장 조성사업, 곤포사일리지 단지조성, 풀사료 생산지원, 가축분뇨 재생화 지원 등을 강화하는 한편, 도내 우수축산물 사용 시 차액을 지원하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에 올해도 160억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조사료 자급률 70%까지 높여 사료비 절감 등 경영안정 중점 지원

강원도의 FTA대책 기본방향은 특성화·차별화·명품화·전문화로 요약된다. 축산의 경우 고급육 생산과 사료비절감 등 경영안정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한우산업은 고급육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가공공장 설치 및 직거래 기반을 조성해 유통을 강화한다. 지역에서 생산된 고급육을 저렴하면서도 위생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조사료 생산용 농기계를 공급하고, 사료 종자대를 지원해 농가의 사료부담을 경감시킨다. 아울러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순환 조사료 단지를 조성해 자급률을 70%로 높인다는 복안이다. 수도권과 유리한 접근성을 활용해 직거래 중심의 마케팅을 전개한다. 수도권 학교 급식이나 공공기관, 대기업 등 대형급식처를 대상으로 강원지역 축산물 납품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축산물 수입증가에 따른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도와 시·군 합동으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반'을 상설 운영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한다. 이와 같은 전체적 틀 속에서 매년 대응과제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 목표치에 접근할 계획이다.

강원도



사료배합기, 옥수수 수확기 등 공급 가축방역 지원

충북도는 생산비 절감과 가축질병 예방에 중점을 둔 대책을 마련했다. 농가에서 농후부산물을 활용한 TMR사료를 만들 수 있는 사료배합기를 올해에만 도내에 200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총 60억이 소요되는 이번 사업에 충북도는 도비 10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료작물인 옥수수 수확장비도 지원한다.

또한 가축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식 동력살분무기를 올해 총 1,000대를 보급해 악성 가축질병을 차단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그 외 청풍명월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이나 번식농가 암소개량지원 등의 기존 사업들을 꾸준히 전개하면서 충북한우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며,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1개소)도 눈여겨 볼만한 사업이다.

충북도



볍짚 대신해 양질 사료작물로 상시 방역체계 구축

볍짚 중심의 조사료 생산을 양질조사료 중심 생산체계로 전환한다. 양질의 조사료는 곧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지름길로 현재 한우농가의 대부분은 저렴한 볅짚을 조사료로 사용하는 것이 대다수. 전체 조사료 가운데 볅짚이 차지하는 비중만 보더라도 5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이를 2014년까지 30%로 줄이고, 양질의 사료작물로 대체해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조사료 유통 경영체도 89개소로 확대해 유통을 활성화하며, 조사료 생산 공급 거점센터를 육성해 농가가 비교적 낮은 가격에 조사료를 원활하게 공급받아 사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사전예방 중심의 상시방역시스템 구축 또한 충남의 핵심 사업이다.

차단·예찰·소독 등 현장중심의 연중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예찰요원 210명, 방제단 450개소를 동원하고 예방백신,약품, 시설 등을 지원한다. 주요가축질병인 브루셀라는 2013년까지, 결핵은 2020년까지 근절시킨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한편 청정 이미지 구축을 위해 그린축산환경 조성에 힘 써나갈 계획이다.

아름다운 농장만들기를 2012년 100개소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300개소로 확대하고, 미생물 발효제 및 축분악취 탈취제를 연간 218톤씩 공급할 계획이다.

충남도

시설현대화에 과감한 지원

경북도

경북은 축사시설 현대화, 가축계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591억원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노후되거나 불량한 사육환경을 개선토록 지원하고, 한우암소 개량을 통한 고급육 생산 등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총 379억을 신청했으나, 사업신청 기간 중 누락된 농가를 구제하기 위해 추가 신청을 받아 지역 축산농가에게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환경규제로 이전이 불가피한 한우 농가에 이전 신축 자금 지원을 건의해 반영하기도 했다.

또한,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계열주체가 유통 전반을 책임지는 가축계열화사업 등에 212억원을 신청해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한다.

사육현장 의견 최대한 수렴한 대책 만들 것

경남도

경남은 수차례 지역 축산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수렴해 함께 의견을 만든 것이 특징이다.

올 초에는 한우가격 폭락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고, 총 9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경남 한우 경영안정화 특별대책을 만들어 발표했다.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료가격 인하를 지원하고,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축사육이나 축산물 유통 과정에서의 위생수준을 높여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피해농민에 대해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 지원제 등 직접지원을 확대하고, 수해업종에 대한 사회적 의무부과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풀사료 확대에 주력, 축산물가공산업 육성

전북은 2020년까지 6개 분야, 21개 사업에 총 1조2,04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자급풀사료 생산(5,409억), 가축 방역(2,658억), 사육환경개선(2,593억), 유통위생(740억), 분뇨처리시설확충(582억), 친환경축산(60억) 분야에 예산을 각각 배정했다.

자급풀사료 생산 및 이용 확대를 통한 생산비 20%절감을 목표로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2011년 기준 21천ha에서 2015년까지 30천ha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풀사료 수확제조비, 경영체 풀사료 생산장비, 풀사료 배합기, 경종농가 풀사료장려금 등의 지원제도를 함께 시행한다. 현 조사료와 배합사료의 급여비 4:6을 2015년까지 6:4로 개선한다는 목표다.

사육단계부터 HACCP 지정 및 친환경 축산물 인증확대를 통한 고품질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해 예방약품 및 차단방역 시설을 지원하고 민간방역 시스템 활성화로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를 구축한다.

740억을 투입해 고부가가치 축산물가공산업을 육성한다. 비선호부위를 활용한 축산가공식품 생산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축 가공업체의 현대화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전북도

자급률 100%달성 목표, 유통채널 구축 적극 지원

청정 지역의 강점을 부각해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전남도의 전략이다. 청정이미지 구축을 위한 작업으로 친환경 축산물인증을 2,130호(2011년)에서 1만호(2015년)로, HACCP 지정농가를 593호(2011년)에서 2천호(2015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넓은 경작면적의 강점을 살려 조사료 생산 확대에도 지속적으로 매진해 생산면적을 32천ha(2011년)에서 90천ha(2015년)로 확대하고, 경영체도 404개소(2011년)에서 1천개소(2015년)까지 늘려나 2011년도 92%의 조사료 자급률을 올해에는 100%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축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고, 축산물 가공시설을 150개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브랜드 축산물 판매망을 확대해 전남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 축산물이 원활하게 판매될 수 있는 유통채널을 구축하는데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유희초자원 활용, 흑우 개발 육성

제주는 FTA로 인해 15년간 축산업 누적 피해액이 1,830억원으로 예상, 이에 올해 37여억원의 예산으로 산지 소가격을 안정화시켜 축산경쟁력을 갖추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저능력우 도태 및 한우개량을 통해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중산간 유희초자원을 활용해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를 이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산지 소값 출하장려금, 보들곶제주한우 명품농가육성, 기능성 한우생산 외 15개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제주 고유 향토자원인 제주흑우를 명품화하고자 희소성을 부각해 고부가 웰빙상품으로 개발 육성한다.



제주도

소 브루셀라병 근절은 가능한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세균질병과장
정석찬 박사

2011년도 0.26%로 급하락세, 2013년 소 브루셀라 병 근절 목표

소 브루셀라병은 주로 유·사산 및 불임증을 일으키는 생식기전염병이자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사람이 감염될 경우 파상열이 발생한다. 한번 감염된 농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외면으로 축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 산발적으로 발생하다가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됐다. 정부는 2013년까지 브루셀라병 근절을 목표로 강력한 방역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소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검진을 실시해 감염 소를 색출·살처분하며, 거래 시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를 의무화하고, 감염의심 농가 다발지역에는 검진을 강화해 브루셀라병을 예방하고 있다. 그동안 강력한 방역정책과 축산농가의 노력에 힘입어 소 브루셀라병의 농장단위 양성률은 2006년 2.18%(4,498가구)에서 2011년 약 0.26%(490가구)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금년 2월말까지 약 0.06%(37가구) 양성률을 보이고 있다.

브루셀라가 발생했던 호주, 일본,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이를 근절하고자 많은 방역 예산 및 인력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년 이상이 소요됐다. 이처럼 종식이 쉽지 않은 브루셀라병의 근절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검진과 소독, 이동제한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입식 시 반드시 확인하고 정기 검색으로 근절해야

소 브루셀라병 근절이 어려운 이유는 브루셀라균의 생존능력과 잠복기 때문이다. 브루셀라균의 잠복기는 평균 3주에서 2개월이지만 2년 이상인 사례도 있어서 양성가축 색출이 어렵다. 또한 브루셀라균은 직사광선에서는 5시간 이내 사멸하지만 유산 태반이나 토양 속에서는 수개월 이상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철저한 소독을 병행하지 않으면 완전한 종식은 쉽지 않다.

따라서 소 브루셀라병 종식을 위한 최소한의 예방수칙으로는 정기적으로 검색하여 감염된 소를 살처분해 해야 한다. 또한 소를 입식할 때 전염될 우려가 크므로 소를 구입 시 반드시 검사증명서와 더불어 브루셀라병 음성농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유산이나 조산하는 소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브루셀라병 검진을 실시하고, 유산 태아 및 분비물 등은 신속하게 소독 후 소각 또는 매몰하여 전염을 방지해야 한다.

브루셀라 근절을 위해서는 농가 뿐 만 아니라 지역이나 클러스터를 통해 브루셀라병을 근절시키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제주도의 브루셀라병 근절경험과 세계동물보건기구(OIE) 표준실험실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방역기술을 비롯해 농가의 방역노력이 합쳐진다면 브루셀라병을 근절하는 날이 조만간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구제역 백신 자가접종 부상우려!

고령농가, 백신접종 시 위험 노출 손쉬운 백신접종 지원 필요

구제역 예방접종이 농가의 책임이 됐다. 50두 미만 농가에게는 무상으로 백신을 공급하지만 50두 이상 농가들은 직접 구입해서 접종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백신 후유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 이천 솔로몬 목장의 신보현 대표는 노령화된 농가에게 자가 접종은 무리라고 말한다. 신 대표는 “한우의 경우 10두 미만 규모의 농가들이 7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60세를 넘는 고령 농업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고령의 농가가 직접 소를 매고 백신을 놓는 것이 당사자에게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할 만큼 위험한 작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실제 지난주에도 한 농가가 백신 접종을 하려고 소를 매다가 코를 크게 다친 것을 봤다”고 말했다.

신 대표의 경우에도 백신을 접종 할 때는 인근 농가의 도움을 구한다고 말했다.



신보현 대표(경기·이천)

악성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백신접종을 해야 하지만 위험부담이 큰 농가입장에서는 꺼려지는 작업일 수 밖에 없다.

신 대표는 “백신은 어느 누구하나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일이다. 농가에게 책임만을 물릴 것이 아니라 직접 접종 작업을 하기 어려운 농가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농가의 경우 작업 환경은 더욱 열악하다.

그는 “그나마 농장에 고정틀이 설치된 곳은 작업이 수월한 편이다. 하지만 고정틀은 대부분 일정규모 이상의 농장에 설치돼 있다. 백신접종을 위해서라도 소를 손쉽게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백신작업 중에 다치는 경우는 실제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강원도 춘천에서는 남의 농장에서 백신접종을 돕다가 큰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된 사례도 있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터지면 책임소재를 밝히기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일반적으로 남의 손을 빌리더라도 소를 매는 것은 소 주인이 직접하는 것이 관례다.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안전사고 때문이다. 때문에 이웃 주민이더라도 쉽게 작업을 돕기가 어려울 수 있다.

백신 접종 작업을 전담해 도울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



신임 자조금관리위원장으로 강성기씨 당선

한우자조금 대의원회 16일 개최, 2011년 사업결산 보고

지난 16일 한우자조금 대의원회가 안성에서 개최되어 강성기 신임 관리위원장을 선출하고, 2011년 사업결산 및 2012년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 신임 관리위원장으로 강성기(우) 대의원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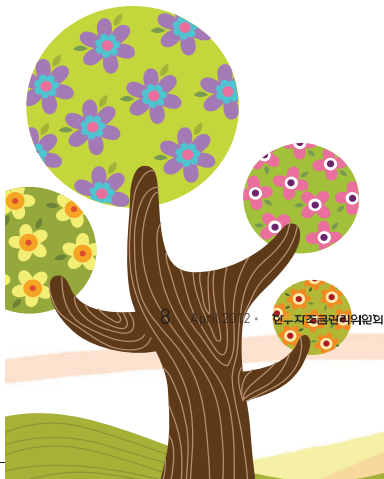
1 강성기 관리위원장 무투표 당선

한우자조금 대의원회에서 신임 관리위원장에 강성기씨가 무투표 당선됐다.

지난 16일 안성 교육원에서 회의를 갖고 결산 승인과 함께 관리위원장의 잔여임기에 대한 보궐선거에서 정호영 후보의 유고로 인해 강성기 후보가 단독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강성기 관리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한우산업을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킬까 고민하다가 관리위원장에 출마했고, 한우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위원장은 “수입생우를 막아내기 위해 농가들이 온 힘을 모아 싸웠던 기억을 되새기며 사심없이 잔여임기 1년여 동안 열심히 할 것이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한우산업 발전에 모든 역량을 펼치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관리위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10페이지 참고)

이에 앞서 지난 7년간 자조금관리위원장을 역임한 남호경 전 위원장에게 재직기념패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남호경 전 위원장은 “전국을 순회하며 자조금의 필요성을 농가에게 설득해 자조금을 만들었다. 오늘날 한우자조금은 한우산업 발전에 초석이 되어 타 축종 자조금의 모범이 되었다. 한미 FTA 시행 등 어려운 시기에 자리에 물러나 마음이 편치 않지만 한우농가의 결속력으로 극복하리라 믿는다”며 퇴임사를 밝혔다.



2 한우자조금, 2011년도 사업결산 및 2012년도 사업계획 2011년도, 구제역 극복을 위한 다각적 사업 진행

2011년도 한우자조금 예산은 총 246여억원으로 이 예산을 통해 다각적 사업을 진행했다. 연초 구제역 발생과 한우 사육두수 증대로 한우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했었다. 한우가격의 빠른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범국가적인 대규모 할인행사'를 기획, 모든 유통채널을 통해 30%이상 할인판매를 진행해 711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11월1일 '대한민국 한우먹는날'을 전국적으로 진행해 22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리고 식당 및 정육점 가격을 낮추고자 '가격 연동제'를 채택해 광고를 진행했다. 한편 한우농가 스스로 사육두수를 감축을 위해 10만두 자율도태캠페인을 진행하며 한우가격 안정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

한편 소비자 욕구에 충족시키고자 '한우맛집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으며 '한우 114 한우 할인몰'을 오픈해 할인 중인 한우고기 상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소비자가 쉽게 한우를 접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미국, 호주산 쇠고기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프로모션과 PPL을 진행하며, 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판매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소비자 위반신고 사례금'을 시행해 경각심을 일깨웠으며 합리적 유통구조를 구축하고자 '소비자 유통 판매지원 사업', '직거래 판매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3 2012년도 한우자조금 사업은 소값 회복

2012년도 한우자조금예산은 총 286여억원으로 한우가격 안정을 기본방향으로 채택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자조금 사업성과를 제고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소값 회복에 집중하고자 2011년도 이월예산 33억원과 2012년도 자조금 전체 사업예산의 58.7%를 차지하는 161억원을 한우소비활성화 지원(89억원)과 수입육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비촉진 광고 및 제작협찬(64억원) 등으로 사용하려 한다.

한우암소 할인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 한우 출하에 대한 운송비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2등급 이상의 암소를 출하 유도할 예정이다. 이날 농림수산식품부 조병임 서기관은 "한우산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육두수를 조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암소사육두수를 감소시키는 반면 암소 소비량을 늘리려고 한다. 작년 한우 반값 할인행사 등을 통해 소비량이 43% 증가했으며, 통계상 작년 4/4분기에 비해 올해 1/4분기에는 암소 1만두가 감소했다. 가임암소수 100만마리 미만을 목표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우자조금은 한우판매전문점 선정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한우국제종합학술대회 개최하며, 축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시키고자 토론회 및 지역순회 세미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 모두가 상생하도록 노력하겠다

Q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에 임하는 각오는?

A 지역에서 수입생우 입식저지, 유통감시 활동 등을 하면서 나름 열심히 또, 후회없이 일했다. 솔직히 이번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고, 결국 관리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각오는 하나다. 우리 후손에게 떳떳하게 물려줄 수 있는 한우산업의 기반을 닦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기본에 충실할 생각이다.

Q 현재 한우자조금의 역할은?

A 한우산업에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이 생겼을 때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한우자조금이라 생각한다. 때문에 구제역 같은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한다고 본다. 또한, 평소에도 한우에 대한 소비자 이미지를 좋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꿀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비록 길지는 않지만 임기동안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농가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며, 이를 해결하고자 일할 것이다.

Q 한우소비홍보를 위해 생각하는 방안이 있는가?

A 한우소비의 키포인트는 가격에 있다.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한우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생산자 직영 판매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현재 직영매장은 소비자가 적은 시골 산지에 위치했지만, 이런 매장이 소비자가 많은 대도시에서 생긴다면 한우소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등심, 안심 등을 제외한 저지방부위를 활성화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지금은 한우 한 마리 전체를 효율적으로 판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등심과 안심, 갈비 같은 일부 부위에 가격이 편중되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Q 한우협회장과 자조금관리위원장의 분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A 한우협회 사무국장과 지부장을 거친 사람으로 누구보다 한우협회에 대한 애정이 크다고 자부한다. 협회장과 관리위원장이 분리되면서 각자 주어진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제 협회는 협회의 일을 하고 자조금은 자조금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농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협회와 자조금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두고 싶다.

협회 활동을 통해 지금 자조금관리위원장까지 할 수 있었다. 협회와 자조금 모두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배려하고 노력할 것이다.

강성기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에 강성기씨가 선출됐다.

경남 김해 출신으로 한우협회 김해시지부 사무국장과 지부장을 역임했으며, 수입생우 입식저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으며, 지난 16일 열린 한우자조금 대의원 총회에서 신임 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그에게 한우자조금의 운영방안 및 각오에 대해 들어봤다.

”

차량등록제, 농장·마을별 질병관리 등급제 추진

효율적인 가축전염병 예방위해 법령 개정 올해부터 시행 예정

올해부터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알아보도록 한다.

출입차량 등록제 및 무선인식장치 장착 의무화, 일시 이동중지 명령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등록제 도입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8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출입차량은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 '축산출입차량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등록된 차량을 이동통신사에 통보하고, 이동통신사는 차량소유자에게 무선인식장치를 14일 이내에 공급한다. 차량소유자는 공급받은 즉시 차량 앞면에 출입차량 등록증 및 무선인식장치를 장착·운영해야 한다.

한편 농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구제역(백신접종 미실시 유형의 발생 시에 한함) 및 AI 발생 등의 경우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을 경우 가축소유자, 차량운전자 등에게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게 된다.

농장·마을별 질병관리 등급제 추진 예정

가축전염병 청정화 달성을 위해 '농장·마을별 질병관리 등급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올해 종축장 및 신청농장에 시범적용을 거쳐 전업농장('13), 전제농장·마을단위('14)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평가는 지자체와 검역검사본부가 분담하며 농장 입구에 출입통제·방역등급 및 주의사항을 기록한 표지판이 설치된다. 평가기준은 총 100점으로 방역·위생관리사항(현장방문을 통해 소독설비, 환경·위생관리 등 평가)이 45점, 질병비발생 기간 및 예방접종률(과거 질병예찰 및 검사실적 활용 등)이 55점으로 나뉘어 평가한다.

검역검사본부는 농장 및 마을, 종축시설 등 각각 특화된 방역모형을 개발하며 등급에 따라 상위등급에는 방역비용·축사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하위등급에는 보상금 차감지급·감독강화 등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방역우수 농장에 실질적 이득을 주고, 청정농장 확산을 통해 방역 실효성을 증진시키고자 '청정농장 인증제'를 추진한다. 인증대상은 소의 경우 브루셀라, 결핵이며 정기적 예찰 및 검사를 통해 과거 3년 이상 비발생인 경우, 방역·위생관리 실태를 현장 조사한 후 인증할 예정이다.

[표] 등급별 방역모델 예시

1등급	방역선도 농가지정, 전염병 검사를 모니터링 수준으로 적용 및 소독점검 완화 등 정부감독 간소화
2등급	질병 청정화 후보 농장으로 지정, 전염병 정기검사 등 중점관리
3등급	소독·차단방역 교육, 주기적인 예찰·전염병검사 실시
4등급	공동방제단 직접 투입, 방역지도 전담자 지정·관리

스키드 로더 4톤 미만까지 면세유 지급 확대

농업용 굴삭기와 화식용 사료배합기에도 면세유 배정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월 15일부터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 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화식용) 3개 기종을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포함하고, 현행 자체 중량 2톤 미만의 농업용 로더에만 공급하던 것을 4톤 미만까지 면세유 지원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3개 기종이 추가됨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42개 기종으로 늘어났다.

농업용 화물차와 로더의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하고, 자동차 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한다.

농업용 로더의 경우 2011년 3월부터 자체중량 2톤 미만에 대해서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지만 조사료 운반이나 축분 처리 등의 작업 시 2톤 이상 로더의 사용 증가와 안전사고 등을 감안해 자체중량 4톤 미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화물차의 면세유 공급량은 연간 379ℓ를 정량 공급하고, 농업용 로더는 기종과 규격을 기준으로 연간 1천200~1천500ℓ를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용 화물차와 로더에 공급되는 면세유가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전용 사용 및 관리방안을 추진한다. 면세유 공급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가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신고한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기종의 면세유 신청시 지역농협은 공급대상 기종임을 확인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스티커를 발부하고, 신청인은 이 신고증을 항상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해당기종은 지역농협에서 별도로 전산관리하고 면세유 배정시기도 월별로 정량을 배정해 사용토록 한다. 이월 시키거나 다음달 배정 물량을 미리 사용하는 것은 불허한다. 화물차와 로더에 대해서는 보유현황을 매년 신고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협을 통해 해당기종의 보유 현황과 용도 외 사용 여부 등을 수실로 점검받도록 한다.

위의 사항을 어기거나 면세유를 부정사용한 농가에 대해서는 2년간 면세유 공급중단, 가산세 추징과 감량 배정 등 처벌도 강화한다.

[표] 신규 면세유 지급 안내

※지역에 따라 증빙서류 및 신청기간의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지역농협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기기분류	증빙 서류(농업경영체 등록 대표자와 차량소유주, 운전자가 동일인일 것)	지급량
농업용 스키드로더 (2톤이상~4톤미만)	건설기계 등록증 및 면허증 (검사는 등록증, 면허는 교육이수증 확인으로 대체가능)	1,200~1,500ℓ
농업용 화물차(1톤이하) (VAN형식은 제외)	자동차등록증, 면허증	379ℓ (경유, LPG 등 유종 제한없음)
농업용 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화식사료용)	굴삭기 : 출고증	굴삭기 : 181ℓ 사료배합기 : 1,000ℓ



면세유 공급대상 추가기종 신고요령



-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관할 지역 농협에 신고하고, 취득·양도, 사망, 이농 등의 변동 사유 발생시 30일 이내에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한다.
- 중고 거래 등의 변동신고 사유 발생시 양수인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양수인이 면세유를 공급받지 않을 경우 양도인이 신고한다. 이 때 양수인 관할 지역조합장은 양도인 관할 지역조합장에게 변동사항 내용을 지체없이 통보하여 면세유의 중복배정을 방지한다.
- 신고의무 미이행자가 면세유를 공급받을 경우 부정사용으로 간주하여 2년간 공급중단 및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가축재해보험, 개체별 가입토록 개선해야 ...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보험이다. 가축의 경우도 예기치 못한 사고로 다칠 수 있고, 폐사할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들어진 것이 가축재해보험이다. 특히,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가축과 축사보험료의 50%를 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가 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져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축산재해보험의 가입요건 및 개선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 한우는 농장단위, 포괄가입만 가능

한우의 경우 가입대상은 생후 만2개월 이상부터 13세 미만의 일반 한우와 종모우다. 종모우는 개별가입이 가능하지만 일반한우의 경우는 농장단위로 포괄가입만 가능하다. 정부에서는 공통적으로 50%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축산재해보험을 가입한 일반 한우농장에는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 ▲풍해, 수해, 설해 등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한 폐사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난산, 산욕마비로 인한 즉시 도살 ▲소 도난 손해발생 등의 경우 보험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 긴급도축, 화재, 풍수재의 직접손해 이외 질병 등 관련 사고는 보상받지 못한다.

생산비 절감위한 개체별 보험으로 조정해야

축사특약에 가입한 경우 화재로 인한 손해와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 발생 시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축사특약은 적법한 시설에 한해서만 정부지원이 가능하다.

농가가 부담해야 할 납입금은 시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두당 5만원을 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한우농가들은 축산재해보험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개체별 가입이 아닌 농장의 전 사육개체를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지적이다.

한우 100두 사육농장의 경우 농가 부담금이 평균 1만원으로 책정됐다고 가정하면 1년에 100만원을 납입해야 한다.(1년 기한으로 매년 갱신해야 함. 연장가입 할 경우 5% 할인)

한우의 경우 송아지 때를 제외하고는 폐사율이 극히 저조한데 전체 사육두수 모두를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이천 성원목장의 공준식 대표는 “한우농장의 경우 연평균 폐사율이 5%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6개월령 미만의 송아지 때 폐사를 한다. 농장주 입장에서는 그 송아지들에 대해서만 개별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안 그래도 생산비가 많이 올라 부담이 큰데 목돈을 들여 전체 농장단위로 가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이력제를 통해 개체 확인이 가능한 만큼 가축재해보험에 개체별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2015, 2020년 가축개량목표 고시 개정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년간 축종별 개량 성과를 분석, 평가해 한우의 생산성과 품질 고급화를 위해 체중증가와 고급육 생산에 중점을 둔 2015년도와 2020년도 가축개량목표를 변경 고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강도 및 선발두수를 확대한다. 당대검정의 경우 올해 600두에서 내년에는 800두로, 후대검정은 '15년까지 900두(기관검정 400두)로, 보증씨수소는 현재 20두에서 '15년에는 30두내 외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한우 암소개량센터를 구축해 초우량 한우 수정란 생산·공급(6천개/년)하며 후보씨수소를 확보하려 한다. 이밖에 도체 성적이 우수한 농가의 신청을 유도해 한우 육종농가 지정대상을 확대하며, 한우 암소 혈통관리를 개선, 초음파 및 유전체 선발 기술 등을 활용해 한우 씨수소 선발 정확도를 제고한다. 한편 현장자료 생산용 표본 모니터링 농가를 설정해 한우개량성과 측정 및 정책자료의 기초자료로 이용할 예정이다.

[표] 개량목표(수소 기준)

구분	체중(kg)						도체(거세우 도축시)			
	비거세우(월령)			거세우(월령)						
	6월	12월	18월	6월	12월	도축시	도체중(kg)	등지방(cm)	등심면적(cm ²)	근내지방점수
2010	176	382	553	167	351	701	407	1.3	86	5.0
2015	180	403	574	171	365	726	421	1.3	88	5.7
2020	184	424	594	174	379	755	438	1.3	90	6.5
연간 개량량	0.8	4.2	4.1	0.7	2.8	5.4	3.1	-	0.4	0.15

PPL 및 행사안내

MBC.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03.27)

수험생 몸보신을 위해 한우사골곰탕을 끓여 기운을 북돋우고자 한다.



SBS. 내딸꽃님이(03.30)

한우등심으로 식사하는 중 마블링에 감탄, 성인 병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다.



시·군지역소비홍보(04.13~15) 논산딸기축제



한우정책설명회(04.13, 충남 예산)



한우소식 이모저모

정호영 한우협회장 별세

오는 30일 한우협회장 보궐선거



정호영 한우협회장이 지난달 31일 경남 하동에 위치한 자신의 농장에서 트랙터 작업 중 전복돼 중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 별세했다. 이에

한우협회는 협회장으로 고인의 장례식을 진행, 하동 진교장례식장과 서울 사무실에 분향소를 마련했으며, 하동농업인 회관앞에서 영결식을 열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고 정호영 회장은 지난달 21일 취임식을 갖은지 10일 만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한편 한우협회는 지난 6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고 정호영 회장 유고에 따른 제6대 중앙회장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오는 30일 한우협회장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한우 718,256두 출하, 평균4,878천원으로 분석

2011년도 등급판정분석 결과, 1,202천원(19.8%)하락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11년 축산물등급판정분석 결과 한우 718,256두를 출하해 수취가격은 4,878천원/두로 집계했다. '10년(6,079천원/두)대비 1,202천원(19.8%)하락했으며, 평균 경락가격은 12,782원/kg으로 '10년(16,036원/kg)대비 3,254원(20.3%)하락했다.

한우 성별 출하비율은 거세우 376,458두(52.4%), 암소 293,640두(40.9%), 수소 48,158두(6.7%)이며 이 중 거세우의 1등급 이상 출현율은 78.3%로 '10년(77.8%) 대비 0.5% 증가했다. 또한 한우 평균 도체중은 381.6kg으로 전년대비 11.8kg 증가, 등지방두께는 12.5mm, 등심단면적은 84.7cm², 근내지방도는 No. 4.5로 분석됐다.

이를 토대로 한우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11년 소득은 1++등급 1,612천원, 1+등급 860천원, 1등급 383천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물류비 절감 및 생축 이동감소를 위해 부분육 품질공정평가제도(시험사업)를 도입해 부분육 가공과 포장 표준화를 유도하고 있다.

애독자 코너

봄날씨와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청객인 황사는 병원균들의 전파가 용이해 여러 질병을 유발하는 계절입니다. 모든 농가는 가축질병을 예방하고자 방역에 힘써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가축방역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및 시범적용을 추진합니다. 새로이 시행하는 법령 중 '출입차량 등록제'도 시행할 예정으로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대해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무선인식장치를 장착, 운영하는 방안이 의무화됩니다. **이 출입차량 등록제는 과연 올해 몇월몇일부터 시행하게 될까요? 더불어 방역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의문사항도 함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우자조금 소식지 11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우편엽서 접수도 가능하오니 아래 접수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전화번호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게재하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송아지 설사예방약을 드립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www.ihanwoo.org

우편엽서
접수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1-19 제2축산화관 2층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소식지 담당자 앞

당첨자

3월호 정답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최점수(전남 무안군), 김시년(경북 영주시), 김동영(강원 영월군), 황금빛(경북 상주시), 이병민(전남 무안군), 이영순(전북 장수군)

인증점 소개

우송

전화 : 051-721-0052

주소 : 부산광역시 가장군 철마면 구칠리 352-1

철마면은 예로부터 부산

전역에 한우 고기를 공급

하는 명소였다. 그 명성대

로 철마한우고기단지는 전

통의 한우마을로 통하며

우송은 철마한우마을의 중

심이다. 직접 조리하는 곰달치에 빛깔고운 마블링의 한

우를 써서 먹으면 그 깊은 맛과 향에 저절로 취하고 만

다. 가마솥에 끓인 곰국 또한 맑고 은은해 인기 메뉴다.

수려한 경관의 달음산과 고찰 장안사의 풍미를 감상하며

즐기는 철마한우의 진미는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한우자조금
등록번호 114-02-01108

비매품 제8권 제28호 통권 제78호 발행일 2012년 4월 25일 발행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_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60 커피아회관 3층 TEL. (02)522-4292~3 FAX. (02)522-3605 발행처 전국한우협회_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화관 2층 TEL. (02)525-1053 FAX. (02)525-1054 편집·인쇄 탐미디어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 그림 등은 무단으로 복제·전재할 수 없습니다.

구제역, 예방으로 조기 청정화를 이룬시다

주기적인 농장 소독과 철저한 차단 방역, 예방접종 실시로 구제역을 예방합시다!

축산농가 방역수칙



구제역 발생한 나라 여행 자제

- 축산농가·가족 및 축산관련 종사자는 입국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
-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 후 입국시 소독 실시
- 입국시 미신고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 인터넷 신고 : <http://www.qia.go.kr> 전화 : 1588-9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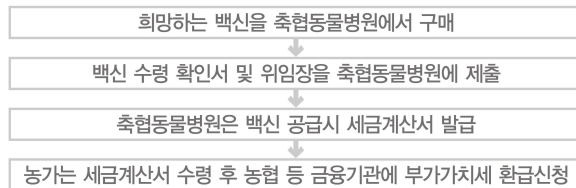
농장 소독 및 차단 방역

- 매주 수요일, 농장 소독 실시
- 외부인, 출입차량의 출입통제와 소독 실시
-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시·군에 신고

백신 접종

1. 구입 방법

• 50두 이상 전업농가



• 50두 이하 소규모농가

시·군에서 조달구매 및 무상공급

2. 접종 요령



• 1두 1침 사용준수

• 백신은 2~8°C 냉장 보관

* 주의사항 : 사용 전 백신을 가볍게 흔들어도 백신의 층이 분리된 경우 또는 알맹이가 보이는 경우 사용 금지 (얼렸다 풀린 경우에 해당됨)

• 백신 개봉 후 36시간 이내 접종

• 주사시 요령

- 사용시 상온에 2~3시간 놔둔 후 백신온도가 20~25°C에서 주사 실시
- 백신 사용 전 백신 병을 2~3회 반복하여 부드럽게 위·아래로 뒤집어 섞음
- 주사시 약물이 완전히 주입되도록 3~5초로 천천히 주사

3. 2012년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 송아지 : 2개월령 1차, 4주 후 2차 접종
- 모든 소 : 5~6개월 간격으로 접종
- * 접종량(1회) : 2ml/마리

4. 구제역 항체 양성을 미흡농가 불이익

- 구제역 예방접종 미 실시 또는 항체가 미달(소 80%) 농장에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농장당 16두 검사
- 소규모 농가 전두수 검사

매매·도축 출하시 참고하세요

-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휴대 간소화 : 이력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폐지
- 도축출하 소 등에 대한 예방접종 관리 방안 : 도축출하 예정우는 백신 최종 접종 후 6~7개월 이내 출하시 백신접종 안함